

# Global Market Report

---

## 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

---



CONTENTS

**목 차**

**요 약 / 1**

---

**I. 미국의 TPP 탈퇴 개요 / 3**

---

**II. 국가별 대응 및 반응 조사 /4**

---

1. 일본 / 4
2. 캐나다 / 8
3. 멕시코 / 10
4. 베트남 / 12
5. 호주 / 15
6. 뉴질랜드 / 17
7. 싱가포르 / 18
8. 말레이시아 / 20
9. 칠레 / 22
10. 페루 / 25

## 요 약

- 대다수 가입국 “미국 없는 TPP는 유명무실”이라는 입장 표명
  - 일본, 캐나다, 멕시코 등 주요국, TPP 주요 가입국은 TPP 전체 GDP의 60%를 넘어서는 미국의 탈퇴로 TPP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
    - 미국의 탈퇴로 타격이 가장 큰 일본, 호주·뉴질랜드와 합세하여 ‘TPP 살리기’에 나설 예정, 210일 마일 정상회담에서 TPP의 상호 이익을 강조할 예정
      - \* 일본은 일본기업의 미국 내 고용·투자 기여를 강조하고 일본 공적연금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TPP 유지에 필사적
    - 그러나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TPP 탈퇴를 선언, TPP 폐기 행정명령(1.23)을 불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
    - 호주, 뉴질랜드는 미국을 중국 등으로 대체하여 TPP 협상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나 대부분 가입국은 동의하지 않아서 TPP의 무산은 기정사실
- 기존 가입국, 다자·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TPP 대안 모색, 세계통상 질서 내 중국·EU 영향이 강화될 전망
  - 중국, EU의 다자 통상 부문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등 세계무역 질서의 지각변동이 예상
    - 베트남·말레이시아·싱가포르 등은 TPP의 대안으로 중국 주도 RCEP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, 멕시코·페루·칠레 등 중남미 국가도 대미 무역을 축소하고 대중 무역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
    - 일본·베트남은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TPP를 대체할 시장을 발굴 중이며, ‘태평양동맹’ 가입국도 EU와 통상협상 개시
      - . 프랑스 대통령 올란드, 미국의 TPP 탈퇴 당일(1.23) 콜롬비아 방문, 프랑스와 EU는 태평양동맹과 통상 협상을 개시를 선언
        - \* 태평양동맹(PA) : 2012년 결성, 멕시코, 칠레, 페루,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 가입한 경제 연합체
  - 캐나다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은 주요 무역국·TPP 가입국과 양자 FTA를 추진할 예정, 말레이시아 등 미국과의 양자 FTA를 검토하는 국가도 있음

## 요 약

### □ 국가별 반응

- (일본) 미·일 정상회담(2.10) 계기로 TPP 부활을 위해 마지막 시도
  - 일본의 미국 내 고용과 투자 기여를 강조하고 일본 공적연금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계획까지 발표, 미국 TPP 탈퇴 막기에 필사적
  - TPP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EU와의 EPA 조기 합의 추진, RCEP에도 긍정적으로 임할 예정
- (캐나다·멕시코) NAFTA 재협상에 집중, TPP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
  - (캐) 일본·중국·인도 등과 양자 FTA 추진을 통해 무역영토 확장
  - (멕) 호주, 베트남 등 TPP 가입국과 양자 무역협정 추진 전망
- (베트남) RCEP, EU와의 FTA 등 다자협정 활용, 대체시장 발굴에 총력
  - 베트남 정부는 RCEP, EU와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
  - TPP 효과를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기업들의 타격 우려
- (호주·뉴질랜드) 미국 탈퇴 후에도 기존 TPP 고수 희망
  - 미국을 중국,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체하여 기존 TPP 강행 희망
  -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
- (싱가포르·말레이시아) RCEP 등 중국 주도 무역협정에 집중
  - (싱) 現 2개국을 제외한 기존 가입국과 FTA 기 체결, TPP로 인한 타격 제한적
  - (말) 단기적으로 동서남아 수출시장 공략,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FTA 체결 가능
- (페루·칠레) '태평양동맹' 강조, 중국과 TPP를 대체하는 다자 무역체계 구축
  - RCEP 회원국과의 FTA 추진, 미국 무역 비중 축소 및 對中 교역증가 예정
  - EU와 태평양동맹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TPP 대안을 모색

I

**트럼프의 TPP 탈퇴 개요**

<TPP 개요>

-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, Trans-Pacific Partnership)은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
- '05.6월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칠레,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하여 미국, 호주, 페루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캐나다,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
- 다자 무역협정이지만 '예외 없는 관세 철폐' 추구 등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음

-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TPP가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'최악의 협정'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
  - 특히, 환율조작, 판매망 제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적자가 '25년까지 23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
  - 아울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며 TPP 외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들을 재협상 또는 폐기할 계획을 밝힘
- 당선 후(11.22) 발표한 '100일 계획'에서 TPP 탈퇴를 재강조
  -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계획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통해 취임 첫날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발언
  - TPP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다시 가져올 양자 무역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
- 트럼프, 취임 3일 후(1.23) TPP 탈퇴 선언 행정명령 서명
  - 미 무역대표부에 보내는 메모 형식의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TPP를 폐기할 것과 영구히 미국을 TPP협상에서 제외시킬 것, 필요에 따라 양자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령
  - 당선 전부터 TPP를 맹비난한 바 행정명령을 반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견지

## II

## 국가별 대응 및 반응 조사

## 1

## 일본

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아베 총리, 1.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이탈을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“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”고 언급, 미국에 다시 TPP 참여를 제안할 생각을 드러냄
  - “미국 통상 정책은 구체화되고 있다. 미일 경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미 신정부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하겠다”고 강조
- 일본 정부는 현재의 TPP 대책본부를 개편하여 TPP 관련 통상 교섭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치할 예정
  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무역을 ‘불공평하다’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자동차에 관한 일미 협의도 염두에 두고 있음
  - 일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‘자동차 분야에서 대응이 이뤄지면, 미일 FTA 협상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’는 의견도 분분
  - 다만 일본 측은 자동차 협의와 트럼프 정권이 시야에 넣고 있는 양국간 FTA 협상은 분리 대응 할 방침
  - 미국과 FTA 협상이 추진되면 농산물 등에서 엄격한 대응을 강요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예정
-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TPP 이탈을 표명한 현 상황에서, 아베 총리는 EU와의 EPA 조기 합의 의향을 드러내기도 했음
  - 미국의 TPP 이탈 발표 이후 1.24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EU와의 EPA 조기 합의 목표를 언급, 중국을 포함한 RCEP 등의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임할 예정

- 2.10 미국 워싱턴에서의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의 고용과 투자 면에서의 미국에의 공헌을 재차 호소할 전망,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경제 협력의 방향을 모색
  - 아베 총리는 미국에서의 일본 기업 관련 고용과 투자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임
  - 아울러 일본 연금의 일부를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, TPP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
  - 아베 총리는 1.27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‘TPP를 끈질기게 미국에 제의할 것이지만, 양자 FTA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 TPP와 양자 협정의 협상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’는 인식을 보여 양자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냄
  - 미국과의 FTA 협상이 될 경우 농산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“일본이 일방적으로 수탈되는 협정은 성립될 수 없다. 일본이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켜 나갈 것”이라고도 밝힘
  - 일본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에 물리는 사태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임
  
- 나아가 미국이 양자 무역협정으로 축을 옮겨가며 국제협정 시 ‘통화 약세 유도에 대해 관세 인상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’하는 환율 조항을 포함시킬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, 일본은 통화 정책을 제한하는 협정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

## □ 주재국 언론 반응

- 자동차 관련 업계 중심으로 낙담과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
  - 대형 트럭업체에 엔진 부품을 공급 중인 중소기업은 '베트남 등 TPP 참가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트럭 수출 성장을 기대하고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망이 크다'는 반응
  - '왜 일본 제품이 표적이 되어 관세가 높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. 매출의 70%를 차지하는 엔진 부품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이다'라고 언급하기도 함
  - 도요타자동차에 납품 중인 부품업체가 집적해 있는 아이치현의 한 기업은 '당분간은 적극적인 설비투자는 하지 않고 견실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. 하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평

## □ 주재국 바이어 반응 및 대응전략

- K사(종합건설대기업)
  - 종합 건설사로 건설기계 수입,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 중인 기업
  - 미국과의 건설 중장비 거래 비중은 미미, 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TPP 이탈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
  - 또한 아직까지는 미국 TPP 이탈이 확정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음
  - 동사의 글로벌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자면 미국의 TPP 이탈보다는 브렉시트 쪽이 오히려 큼
  - 단, 도요타자동차와 같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에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음
- K사(자동차부품)
  - 전자 및 자동차 부품을 취급 중인 중소기업
  -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, 업계 흐름에 따라 회사 방침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검토해 나갈 예정

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L사(콘텐츠 등 정보통신)

- L사는 콘텐츠 등을 유통하는 IT 플랫폼 운영 기업
- 동사 비즈니스 중 미국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크지 않고, 존재하여도 무형의 서비스 교류 상황이라, 미국의 TPP 이탈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.
-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IT 정책이 미국 대표 IT기업인 페이스북, 구글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중인 L사는 동향을 주목하고 있음

### ○ W사(IT솔루션)

- 동사는 일본과 미국 모두 진출한 상황으로, 현 단계에서는 트럼프의 TPP 이탈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
- IT분야 중소기업이기에 미국의 TPP 이탈에 따른 영향보다 동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제 동향에 따른 기업들의 IT 설비투자 동향, 관심도가 중요한 상황

## 2 캐나다

### □ 정부반응

- François-Philippe Champagne 통상장관은 1월 24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캐나다가 TPP에 잔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
  - 현재 통상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, TPP와 별도로 일본, 중국,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
- Chrystia Freeland 외교장관은 'TPP는 미국이 비준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며 '미국이 탈퇴할 경우 유명무실해 질 것'이라고 우려표명

### □ 언론반응

- 일간지 Globe and Mail 은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(1.25.)하며,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서 중국의 다자통상 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
  - 호주와 뉴질랜드가 TPP 지속에 적극적인 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외교·통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
- 일간지 National Pos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(1.25.)

#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- Air Technology Solutions(공기정화 시스템)
  - 공기정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동 업체는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없으나,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
  - 특히 NAFTA 재협상 추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

○ **Serge Baril(히팅케이블)**

- 히팅케이블을 수입·유통하는 동 업체는 캐나다의 TPP 유지·탈퇴 여부가 향후 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
- 캐나다 정부의 대응을 비롯한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살펴,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

○ **Lighthouse Health Products Inc.(의료기기)**

-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동사는 대미 수출입시 발생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, 신규 거래선 발굴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

□ **현지진출 한국기업 반응**

-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, TPP에 적극적인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**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**는 일부 의견 존재
- 가격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매출(수출) 증대 노력 지속 방침

### 3 멕시코

#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트럼프 대통령 NAFTA 재협상 및 TPP 탈퇴 공식 선언 후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 정책연설(1.23일)
  -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와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재협상을 하면서 협정 체결국인 미국, 캐나다와 무관세 교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
- 1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
  -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장벽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시, 건설 비용에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음
  - 덧붙여 미국 내 50개의 멕시코 영사관들은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
  -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발표, 1.31일 예정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발표, 니에토 대통령 또한 백악관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회담은 취소됨
- 1.31일,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로 폐지 위기에 처한 TPP 협정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부에 기존 가입국과의 양자 FTA 협상 추진 지시
  - 호주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베트남 6개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

※ 현재 멕시코는 TPP 가입국 중 일부 제외 모두 양자 FTA 체결을 해놓은 상황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. 대체적으로 NAFTA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음

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AUDI(자동차)

- 멕시코 투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힘
- 멕시코 투자 이유는 값싼 노동력 때문이며 협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
- 멕시코 공장의 판매처는 미국 30~40%, 중국 및 유럽 40~50%, 멕시코 내수 10%로 다양하며, 향후 NAFTA 협정이 취소된다면 생산 제품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다른 나라에 판매할 예정이라 밝힘

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A사(자동차)

- 현재 멕시코 내 생산량 중 약 80%를 수출하고 있으며, 수출물량 중 대미 수출이 약 75%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- NAFTA를 이용한 무관세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멕시코 진출의 주된 목적으로 TPP 탈퇴의 영향은 미미할 것
- 다만 미국 신 행정부가 NAFTA탈퇴 혹은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확실성은 커진 상태
- 현재 미국의 정세를 주시하며 향후 변화에 따라 대책을 마련,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

### ○ B사(타이어)

- 현재 캐나다, 멕시코 내에 생산법인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,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, 판매할 예정이었음
- 그러나 NAFTA 재협상 시 미국수입제품에 멕시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는 한국타이어의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예상

## 4 베트남

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#### ○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공식 성명 발표(1.24, 화)

- 미국의 TPP 탈퇴 서명 이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Le Hai Binh은 1.24일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음
-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시장의 개방 및 국제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TPP 체결 및 발효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, 앞으로도 TPP를 베트남 경제발전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것임
- 아울러 TPP 이외에도 기 발효 및 협상 중인 양자간 FTA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적·기술적 혁신을 도모할 예정임

#### ○ 베트남 경제전문가 전망(베트남국립사회과학연구원)

- 현재 베트남의 기초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TPP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수혜를 누리기는 어려운 여건이며, 따라서 TPP 불발로 인한 단기적 불이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임
-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베트남이 당면한 과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 개편 및 효과적인 서플라이체인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
-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TPP는 단기적으로 수출 진작 효과 외에 산업구조 및 제도 개혁,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개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- TPP의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재 시점에서 베트남 정부는 기 발효된 FTA와 RCEP, EU아의 FTA 등 새롭게 추진되는 FTA 등을 활용하여 시장개방 및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

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VITAS(베트남섬유의류협회)

-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TPP 발효가 불투명해지면서, 베트남 섬유유의류협회의 회원사들도 아쉬워하는 분위기임
-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섬유유의류분야 기업들의 경우 원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의존해오고 있었기 때문에, TPP의 원산지규정인 원사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이었음
- 때문에 TPP 불발로 인한 단기적 피해는 크지 않다고 보이며, 기존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FTA를 비롯해 EU-베트남 FTA, RCEP 등을 활용한 대체시장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

### ○ GARCO 10(베트남국영의류제조사)

- 동사의 수출물량 비중은 미국 40%, 유럽 40%, 일본 20%로 구성되어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, TPP 불발로 인한 직접적 타격은 없음
- 다만, TPP 발효시 기대되었던 2017년 매출 성장률 30%은 달성이 불가능하여 12%로 하향 조정하였음
- 장기적으로 TPP 효과를 노린 섬유 및 방직 분야의 신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베트남 섬유유의류산업의 발전속도가 지체될 우려가 있음

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U社, S社(삼성전자 협력업체)

-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경우 현재 TPP 폐기 조짐에 따른 직접적 타격은 없음
- 향후 TPP 폐기뿐만 아니라,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해질 경우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 전략이 재수립될 것이고 협력사들은 그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임

### ○ Y社(섬유)

- TPP가 추진되면서 한국의 섬유봉제 분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성화되었으며, 기 진출기업들의 생산라인 증설 및 섬유생산 설비 투자도 이루어졌음
- TPP 발효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른 미국 바이어들의 물량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, 갈수록 바이어들의 요구조건(품질, 납기, 가격 등)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출기업들에게는 부담임
- 또한 TPP 원사규정 특혜를 노리고 섬유생산 및 염색 설비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베트남 남부를 중심으로 다수 있으며, 이 경우 TPP 폐기 시 투자금 회수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
- 한국 섬유의류 분야 진출기업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베트남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며, TPP 발효로 인한 관세양허 효과가 해결방안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큰 상황임

## 5 호주

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미국의 탈퇴 후에도 TPP를 정상 유지할 의지
  - 호주 총리 말콤 턴불(Malcolm Turnbull)은 미국의 TPP 탈퇴 서명 후에도 동 협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
  - 다만 추후 미국이 TPP 탈퇴를 불복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, 미국이 의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TPP는 유지하고 싶은 입장임
  - \* 1.23일, 말콤 턴불 총리는 일본 아베(Shinzo Abe)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두 국가의 기존 TPP 협약 유지에 대해 재차 확인한 바 있음.
- 호주 야당 일각, TPP는 “죽은 무역협정”
  - 호주 야당 대표 빌 쇼튼(Bill Shorten)은 말콤 턴불 총리에 TPP는 이미 끝난 무역협정임을 받아들여야 하며, 미국의 TPP 탈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진작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어야 했다고 비판
  - 또한 야당 소속의 무역 및 투자부 장관 제이슨 클레어(Jason Clare)는 호주는 TPP와 같은 “죽은 무역협정”이 아닌 인도네시아, 인도와 같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증진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
- 중국, 인도네시아 등 미국을 대체 할 수 있는 국가의 TPP 가입 추진
  - 호주는 미국이 없어도 TPP 협정을 유지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중국의 TPP 가입을 추진
  - WTO 전직부대표 앤드류 스톨러(Andrew Stoler)는 호주가 TPP를 포기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노력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며, 중국, 한국, 대만 등의 가입을 추진하여 해당 협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

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S사(對韓 투자기업)

- 미국의 TPP 탈퇴는 한국 및 아시아 국가 투자와 무관
- 당사에서 진행 중인 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국내 및 연관성이 없음

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A사(철강)

- 트럼프가 향후 석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호주의 석탄 산업도 이에 따른 성장이 기대됨
- 화석 연료와 철강 산업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에 따라 호주의 관련 사업도 성장이 기대됨.
-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TPP 탈퇴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움

### ○ B사(전자)

- 미국의 TPP 탈퇴는 한국 전자제품 수입에는 큰 영향 없을 듯
-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은 없어 미국의 TPP 탈퇴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.
- 단, 이로 인한 호주 환율의 변동은 향후 회사 경영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(대응 전략) 미국의 TPP 탈퇴가 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나, 관련 정보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임

## 6 뉴질랜드

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트럼프 당선 이후 예측했던 상황으로 TPP 유지를 위해 호주,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반응
  - 빌 잉글리시 총리는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
- 기존 TPP 진행을 선호하나 동시에 EU·영국과도 FTA 추진
  - 맥클레이(Todd McClay) 통상장관은 TPP 가입국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칠레에서 참여국간 회의를 추진할 계획
  - 빌 잉글리시 총리는 중국, 인도네시아를 TPP에 가입하는 부분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
  - 또한, 금년부터 시작할 예정인 EU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며 영국과도 FTA를 진행

#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- 뉴질랜드는 수입공산품 대부분의 관세가 0~5%의 저관세이며 주요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있어 TPP 탈퇴로 인한 영향이 미미
  - FTA 탈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수출기업인 Fonterra로 미국, 일본으로의 유제품 수출 확장을 기대 하였으나 이번 TPP 탈퇴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

#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-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이 현지 판매법인으로 TPP와 연관성이 낮아 이번 미국의 TPP 탈퇴에 큰 반응이 없는 편

## 7 싱가포르

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#### ○ 싱가포르 정부, “미국 없는 TPP는 발효될 수 없다”

- 싱가포르 통상산업부(MTI)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참여 없이는 기 체결된 TPP 협정은 발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
-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 2017년 초에 TPP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, 해당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
- RCEP, FTAAP 등 기타 지역협정에 대한 참여를 지속할 것이라 발표한 만큼 해당 협정 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

#### <미국의 TPP 탈퇴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성명서>

1. 싱가포르는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역 시스템 및 지역통합 확장을 추구한다. TPP 협정의 목적은 모든 참여국들의 성장기회를 촉진 및 일자리를 창출할 교역·무역 강화였다.
2. 미국은 TPP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. 미국의 참여 없이는 기 체결된 TPP 협정은 발효될 수 없다.
3. 싱가포르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,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(FTAAP) 등 다른 지역통합 계획들에 대한 참여를 지속할 것이다.
4. 싱가포르는 우선 다른 TPP 참여국들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. 각 참여국들은 새로운 편익분석을 신중히 진행해 봐야 할 것이다.

\* 자료원: 싱가포르 통상산업부(MTI)

\* 별첨 원본 자료 참고: “MTI Statement on TPP (24 Jan 2017).pdf“

○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

- Irvin Seah(DBS Economist), “싱가포르는 TPP 12개 참여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와 이미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TPP 탈퇴가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”
- Alice Fulwood(UBS Economist), “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서명 전부터 미국이 TPP 비준철폐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”
-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서명이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첫걸음이라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대외 리스크가 부각될 우려 존재

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○ B사(제조업 투자가)

-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한 바 없음

○ Goh Joo Hin(식품 바이어)

-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

○ Life Research (의료기기 바이어)

- 아시아, 특히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TPP 영향을 받지 않음

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○ A사(반도체)

- 미국 TPP 탈퇴로 인한 부수적 영향 없음

## 8 | 말레이시아

### □ 말레이시아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, 말레이시아가 TPP의 수혜국가로 꼽힌 만큼 미래 수출 확대에는 차질이 생김
  - 말레이시아 Najib 수상, “TPP 없이도 말레이시아 경제는 여전히 견고”라고 발언.
  - 통상산업부(MITI): 미국의 TPP탈퇴는 이미 이전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므로 파장은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함
  - 다만, 말레이시아가 TPP의 대표적인 수혜국가로 꼽혔던 만큼 실망감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임.
  - 플랜테이션 원자재부: TPP를 통해 현재 130억 링깃 규모였던 팜오일 수출물량을 200억 링깃규모로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
  -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회(FMM) : 해외수출을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상당히 유감임
  - Glenreagh Sdn Bhd (컨설팅기업) : 말레이시아는 TPP말고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양자·다자 FTA를 체결하고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임.
- 가입국과의 양자 FTA, RCEP, 미국과의 양자 FTA 등 다양한 대안 모색
  - 말레이시아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TPP 가입국들과 양자 FTA를 다시 추진할 계획임.
  - 특히 202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을 확장시키기 위해 ‘ASEAN+6’가 추진하는 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’의 조기 타결에 집중할 예정임.
  - 아울러 제 3위 교역대상국인 미국과도 양자협상 등을 모색할 계획
  - 우선 단기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·서남아 수출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임

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Clara International Beauty Group Sdn Bhd(무역업)

- 매출 자체에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, 다만 무역회사로서 TPP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었던 마케팅 계획들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망스러움.
- 당분간 기존 시장 개척에 집중하면서, 정부가 RCEP나 기타 무역협정을 통해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릴 예정임.

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### ○ A사(전자)

- 말레이시아 현지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으므로, TPP 무산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
- 다만, TPP 무산으로 인한 실망감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던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동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, 실제로는 TPP 무산보다 환율이 떨어진 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임.
- TPP 무산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며 자금회전도 위축되고 있음
- (대안) 새로운 유통채널 발굴과 신규상품 출시 등 판촉활동 강화 중

### ○ B사(상사 법인)

- TPP 발효시, 경기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기대했으나, 다시금 경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라 실망임
-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에서 더 악화될 상황은 아니며, 기대를 낮추고 관망하는 상황임.
- 한국 기업들은 현지시장 공략을 주력으로 진출하였는바, 미국 TPP 탈퇴가 기대감을 낮추는 수준의 상황변화일 뿐, 별도 전략수정을 고민할 정도는 아님

## 9 칠레

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(칠레 TPP 포기) 에랄도 무뇨스(Heraldo Muñoz) 칠레 외교부 장관은 '우리가 알고 있는 TPP는 이미 논의 테이블을 떠났으며, 미국이 없는 TPP는 더 이상 TPP가 아니다'며 TPP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확정
  - 무뇨스는 칠레-미국 FTA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번 결정은 양국 간 무역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
  - 아울러 최근 TPP 참여국과도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
- (확고한 칠레의 자유무역 기조 및 장관급 회의 개최) 무뇨스 장관은 칠레는 계속 자유무역과 개방 노선을 확고히 유지할 것임을 공표
  - 3월 중순경 태평양동맹(Alianza del Pacífico) 의장국 자격으로 TPP 회원국은 물론 태평양동맹 회원국인 콜롬비아, 그리고 한국, 중국과 같은 비회원국 경제·외교 장관을 초청, 글로벌 경제통합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
  - 파울리나 나살(Paulina Nazal) 외교부 국제경제실장도 칠레 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온 개방과 무역통합 정책을 양자, 지역 혹은 다자 수준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.

## □ 주재국 주요인사 및 언론 반응

- 헤르만 폰 뮐렌브록(Hermann von Mühlenbrock) 칠레산업협회(SOFOFA) 회장은 미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TPP는 칠레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
- 리카르도 뮤즈(Ricardo Mewes) 칠레상공회의소(CNC) 소장은 TPP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 및 무역자유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TPP가 없는 상황에서는 '태평양동맹'이 가장 중요한 경제블록이라고 강조
- 칠레 경제학자 세바스티안 에드워즈(Sebastián Edwards)는 비록 TPP 실패가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지만 여전히 모든 회원국들과의 양자간, 지역간 무역협정이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.
- 태평양동맹의 중요성 부각, 중국·EU와 무역협정을 개시할 예정
  - ('태평양동맹'의 중요성) TPP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블록은 '태평양동맹'이므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항하여 멕시코, 콜롬비아, 페루 기업들과의 더욱 긴밀한 무역 관계를 수립할 전망
  - (중국과의 협의) 3월 개최될 장관급 회의에 중국과 함께 TPP를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
    - \* TPP 협상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유념하여 논의 초기단계부터 시민사회 및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대국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음.
  - (EU와의 무역협정 개시)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, 1.23일 콜롬비아 방문, 태평양동맹과 무역협정을 개시하겠다고 밝힘

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- (현지 기업들 반응) 이번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칠레 정부의 TPP 포기 결정은 적절하며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 매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가 다수.

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- 칠레에 진출한 다수의 상사 법인에 연락을 취한 결과, 기존의 무역협정이나 칠레 국내법을 준수하여 영업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칠레의 TPP 포기와 관련된 피해 및 피해 예상 가능성은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
  - TPP 포기로 인한 칠레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와 영향이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함.

## 10 페루

### □ 주재국 정부,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및 대응전략

- 페루 상공부, 미국을 제외한 TPP에 참여 중인 11개국 대표가 추후 TPP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함.
  - 미국이 중요한 경제블록인 TPP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
  - 회원국 중 페루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5개국(호주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브루나이)와의 시장개방이 불투명
- 페루 정부는 TPP 폐기에 따른 대안으로 TPP 참여국 중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5개국과의 협정체결을 계획 중임.
  - 또한 RCEP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.

### □ 주재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및 대응전략

- 미국은 중국에 이어 가장 큰 무역대상국임은 틀림이 없으나, 현재 중국의 중요성이 미국보다 커지는 만큼 미국의 TPP 탈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
  -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·보호주의 정책을 펼침에 따라, 페루 수출화가 강세를 보이고 광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.
  - 페루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며,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손실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### □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및 대응전략

- 트럼프 집권 후, 최근 광업분야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관계로 주재기업의 영업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  - 페루 최대 업종인 광업이 살아남에 따라 현지인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비교적 고가인 한국산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



작성자

-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
| ◆ 도쿄 무역관     | 이세경 과장 |
| ◆ 하노이 무역관    | 한경준 과장 |
| ◆ 멕시코시티 무역관  | 박민정 과장 |
| ◆ 토론토 무역관    | 이제혁 차장 |
| ◆ 시드니 무역관    | 전희정 대리 |
| ◆ 싱가포르 무역관   | 임정연 대리 |
| ◆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| 복덕규 차장 |
| ◆ 리마 무역관     | 김백진 과장 |
| ◆ 산티아고 무역관   | 김주영 과장 |
| ◆ 오클랜드 무역관   | 최종진 대리 |
| ◆ 시장조사팀      | 강환국 과장 |



Global Market Report 17-007

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 
TPP 가입국 반응조사

- 발행인 | 김재홍  
 발행처 | KOTRA  
 발행일 | 2017년 2월 8일  
 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
 (06792)  
 전화 | 02) 1600-7119(대표)  
 홈페이지 | 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  
 문의처 | 시장조사팀  
 (02-3460-7591)

ISBN : 979-11-6097-114-9 (95320)

Copyright © 2017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

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

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 
TPP 가입국 반응조사

---

Global Market Report